

생애 초기 보육경험과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t Age 4

장영은(Young Eun Chang)*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mount of child care experienced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t age 4 indicated by problem behaviors and peer competence. Using the longitudinal data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the information of 1,699 children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ny child care experience, hours in child care, full-time child care and early entry to child car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and play disruption at age 4. Some significant relations were detected between child care experience and better peer competence as well. Interestingly, the patterns of relations were different for boys and girls. Being in child care, a greater amount of child care and early entry to child care tended to be related to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boys and whereas they were more related to peer competence of girls indicated by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Child care hours at age 3 were relative stronger predictors of children's development compared to those at age 1 or at age 2. The findings imply that the amount of child care during the first 3 years of life does not have strong harmful effects on preschooler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hild care on boys and girls.

▲주제어(Key words): 보육(Child care), 종일제보육(Full-time child care), 사회정서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문제 행동(Problem behaviors),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 유아(Preschooler)

I. 서론

지난 20여년에 걸친 보육의 확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영유아자녀의 양육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2002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그리고 2013년 전면적인 무상보육제공에 이르기까지 보육서비스의 급속한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예산의 증가율은 국고기준으로 2000년 1,495억원에서 2004년 4,049억원, 2008년 1조 467억 원, 2013년 4조 131억원으로 28배나 증가하였다(H. Lee &

C. Park, 2015). 또한 영아보육의 확대로 2015년 12월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1세 영아는 약 30만 명으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이는 만 1세 전체 인구(Statistics Korea, 2016)의 약 70%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급변으로 인해 더 많은 영유아가 무상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출산율의 제고,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의 발달지원(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또는 양질의 대리양육자 제공을 통한 아동 삶의 질 향상(K. Jahng,

* Corresponding author: Young Eun Chang,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Tel: +82-2-820-5359, E-mail: yechang@cau.ac.kr

2012)이라는 여러 차원의 목적과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로서 보육의 확대가 가지는 목표와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육기관 이용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 간에는 보육, 특히 생애 초기 영아기 보육이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왔다(e.g. J. Belsky & M. Rovine, 1988; K. Clarke-Stewart, 1989). 즉, 어머니의 양육을 대신하여 생애초기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경험하게 될 때, 어머니와의 애착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J. Belsky & M. Rovine, 1988)와,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보육과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까지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M. Burchinal & D. Cryer, 2004; NICHD ECCRN, 2001b).

보육의 경험, 특히 보육 시간 및 시작시기와 같은 보육의 양적인 측면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또래유능성과 같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변인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결과는 더 많은 시간의 보육과 공격적이거나 순응하지 않는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J. Belsky, 1986; 2001; M. Choi & N. Shin, 2015; NICHD ECCRN, 1998; NICHD ECCRN, 2001b; NICHD ECCRN, 2003; S. Park & E. Ko, 2004; N. Torres et al., 2015). 중단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공격성(J. Campbell, M. Lamb, & C. Hwang, 2000), 또래에 의한 배척, 학업부진(A. Farmer & K. Bierman, 2002) 또는 청소년 비행(C. Zahn-Waxler, B. Usher, S. Suomi, & P. Cole, 2005)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영유아를 위한 보육이 이후 위험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보육경험과 임상적 수준의 공격성 간의 관계가 밝혀진 적은 없으나, 유아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보육경험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내연구에서도 보육시간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또래유능성과 같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H. Cho & K. Lee, 2004; M. Choi & N. Shin, 2015; H. Choi & S. Park, 2008; K. Kim & I. Shin, 2012; S. Kim, 2008; J. Kwak & Y. Lee, 1997; K. Lee, Y. Kim, & K. Park, 2005; S. Nam Gung & Y. Choi, 2008; S. Park & E. Ko, 2004; S. Um & S. Park, 2006).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영아기 초기부터 유아기에 이르는 시기의 생애 초기 보육경험을 종단적으로 측정하여 유아 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으므로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국내 연구 대부분은 연구 시점에 보육기관에 재원 중이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유아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보육정책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재원의 양상도 변화되었으므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보육경험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간 관계가 탐색될 필요가 있다.

보육시간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부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만 3세 이전에 많은 시간을 보육기관에서 보낸 경우 만 5세에 측정된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J. Belsky, 1999; S. Loeb, M. Bridges, D. Bassok, B. Fuller, & R. Rumberger, 2007), 만 4세 이전의 보육시간과 학령기 공격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밝혀지기도 하였다(A. Borge & E. Melhuish, 1995). NICHD ECCRN(2003)의 연구결과도 유사하여, 54개월 이전의 보육 시간은 만 5세와 6세에 교사 및 부모가 응답한 문제행동에서 더 많은 공격적 행동 및 성인과의 갈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보육시간과 유아 공격성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가 존재한다(S. Park & E. Ko, 2004). 보육시간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밝힌 실증적 증거도 존재하지만(T. Anme & U. Segal, 2004; V. Bacharach & A. Baumeister, 2003; S. Um & S. Park, 2006; T. Van Beijsterveldt, J. Hudziak, & D. Boomsma, 2005), 영아기 보육의 양과 이후 발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출현 간의 관계성은 어느 정도 일관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육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에 어머니 양육을 받은 경우, 비모성양육, 즉 타인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 4세 시기 여아에게서 정서적 문제가 더 빈번히 나타났다(S. Côté, A. Borge, M. Geoffroy, M. Rutter, & R. Tremblay, 2008). 보육기관에서의 시간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므로, 공격성과 같은 유아의 표현적인 문제행동특성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으나, 영아기 보육이 애착(NICHD ECCRN, 2001a) 및 스트레스(M. Gunnar, E. Kryzer, M. Van Ryzin, & D. Phillips, 2010) 등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불안, 우울,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몇몇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중 사회적 유능성, 특히 또래와의 관계에 보육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양육에 비해 보육기관 상황에서는 또래와 놀이를 하거나, 역할을 담당하고, 또래 간 협동 또는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유능성은 발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K. Clarke-Stewart & V. Allhusen, 2005). 보육의 경험이 있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를 더 길게 유지하고, 다른 유아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유와 공감에 있어서도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었고(C. Eckerman & K. Perterma, 2001), 이후 학교 입학 후 더 많은 또래를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T. Field, 1994). 하지만 보육의 시간과 또래관계 간에 부정적인 관계도 밝혀져, 영아기 보육시간이 많을수록 유아기에 측정된 또래유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NICHD ECCRN, 2001b; 2003),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결과도 있다(A. Huston et al., 2015). 그런데 보육과 유아기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미국사례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보육정책과 보육환경을 가진 다른 나라의 경우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보육시간과 유아의 문제행동(H. Zachrisson, E. Dearing, R. Lekhal, & C. Toppelberg, 2013) 또는 사회적 유능성(E. Solheim, L. Wichstrøm, J. Belsky, & T. Berg-Nielsen, 2013) 간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보육은 국가의 정책 및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따라 그 영향력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보육현황에 근거한 종단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보육의 양적 수준이 가지는 영향력은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주당 보육시간 뿐 아니라, 집약적인 보육시간 여부 (i.e. 종일제 보육여부) 또는 보육을 시작한 시기, 또는 보육경험의 시기(timing)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보육시간과 유아의 발달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성이 존재하기 보다는, 유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 양의 임계치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J. Belsky & M. Rovine, 1988; D. Vandell & H. Corasaniti, 1990)에 따라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종일제 보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0~3세 사이에 주당 30시간 이상의 종일제 보육을 받은 경우, 종일제 보육의 경험이 없는 유아에 비해 만 5세 경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며(K. Park & A. Honig, 1991), 이후 학교 입학 이후 덜 순응적이고, 또래와의 관계도 좋지 않으며, 또래로

부터의 선호도도 낮다고 밝혀졌다(D. Vandell & H. Corasaniti, 1990). NICHD ECCRN(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당 45시간 이상의 보육을 경험한 유아의 24%의 유아가 4.5세에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10-45시간의 보육을 경험한 유아의 12%가, 그리고 그 이하 보육을 경험한 유아의 2%만이 이 기준선 이상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나타냈다. 비록 이 기준이 임상적인 고위험군 기준은 아니었으나, 종일제 보육과 같은 집약적인 보육이 우려할만한 수준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8시간 이상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8시간 이용하는 유아에 비해 위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S. Nam Gung & Y. Choi, 2008). 하지만 일부 학자는 종일제 보육 여부보다는 생애 보육경험의 총합과 같은 누적적인 보육 시간이 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J. Belsky, 2001). 집약적인 보육을 받는 유아나 반일제 등 더 적은 보육을 받는 유아 모두에게서 보육시간의 양적 증가와 발달적 결과 간의 선형적 관계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어느 임계치 이상의 보육을 받는다고 하여 보육시간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가 증가하지는 않아(NICHD ECCRN, 2003), 종일제 보육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보다는, 보육시간의 누적적 총합의 영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즉, 생애 초기 종일제 보육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이른 시기에 보육을 시작하는 경우 더 많은 보육을 받게 되고, 종일제 보육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보육의 양과 관련된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육의 시작시기, 특히 영아기 시기에 보육경험이 시작되는 경우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인지도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 관계성 역시 일관되게 밝혀지지 않아서 영아기 조기보육의 경험이 더 많은 문제행동(J. Belsky & D. Eggebeen, 1991; S. Nam Gung & Y. Choi, 2008) 또는 부정적 또래관계를 예측한다는 결과(K. Lee, Y. Kim, & K. Park, 2005)와 오히려 더 나은 사회정서발달에 기여한다는 결과(J. Fantuzzo, H. Rouse, P. McDermott, & Y. Sekino, 2005), 또는 보육시작 시기나 종일제 여부가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M. Choi & N. Shin, 2015; S. Jaffee, C. Hulle & J. Rodgers, 2011)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만 1세 이전에 보육을 시작한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감, 집중력과 독립성이 높고, 불안의 정도가 낮으며 더 우수한 학교적응능력을 보였고(B. Andersson, 1989), 더 많은 또래친구를 가지고 있었

다 (T. Field, 1994). 또한 만 6개월 이전에 보육을 시작한 경우, 그 이후 보육을 시작한 학령전기 유아에 비해 또래와 긍정적인 놀이행동을 보이고, 혼자서 놀이하거나, 놀이지지 않고 떠도는 행동은 더 적게 보이는 경향도 발견되었다(C. Crep & L. Vernon-Feagans, 1999). J. Fantuzzo et al.(2005)이 4000명에 이르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생애 초기 기관형 보육을 시작한 시기가 이를수록, 사회적 지식이나 과제수행태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 보육시작시기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M. Choi & N. Shin, 2015)이나 내재화 문제행동(H. Choi & S. Park, 2008)과 같은 사회정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종합하면, 보육시작시기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에 관해서 일관된 결과가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변인이나 맥락에서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 취원 연령이 낮아지고, 영아보육이 확대되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 보육시작시기의 영향력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생애 초기 보육시간과 유아기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과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A. Huston, K. Bobbitt, & A. Bentley, 2015). 예를 들어, 같은 보육의 경험이라도 유아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민감성 또는 취약성이 다를 수 있다. S. Crockenberg (2003)는 유아의 특성 중 성별이 하나의 중요한 변인 될 수 있다고 보고,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보육의 영향력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E. Maccoby and C. Jacklin(1980)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범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남아는 또래와 활발한 놀이를 즐기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 여아들은 상호작용에 있어 순응이나 협동, 언어적 대화와 같은 더 나은 사회적 기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A. Clarke-Stewart & V. Allhusen, 2005; H. Kim & Y. Kim, 2011; Y. Kwon, 2012; E. Maccoby, 1990; H. Shim, 2007). T. Chaplin and A. Aldao(2013)에 따르면 유아기 여아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적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반면, 유아기 남아는 분노나 공격과 같은 외현적 정서표현을 여아에 비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의 변화나 적응에 있어 여아에 비해 남아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더 취약할 수 있다(A. Clarke-Stewart & V. Allhusen, 2005). A. Clarke-Stewart and V. D. Allhusen(2005)은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 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가 보육경험의 영향력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연구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영아기에 주당 30시간 이상의 보육을 경험한 남아는 여아에 비해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NICHHD ECCRN, 1997), 보육의 질 차이에 의한 순응성에서도 남아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C. Howes & M. Olenick, 1986) 보육의 영향력에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M. Gunnar et al.(2010)에 따르면, 가정양육 유아의 비해, 종일제 보육의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는데, 여아의 경우 이 스트레스가 불안이나 경계행동으로 표현되고, 남아는 스트레스를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육기관 시작연령이 어릴수록 남아에게서 문제행동과 분노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 역시 존재한다(A. Hausfather, A. Toharia, C. LaRoche, & F. Engelsmann, 1997). 하지만 유아 성별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밝혀지지는 않아왔고, 특히 국내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보육의 영향력 차이를 살핀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패널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생애 초기 보육의 경험을 만 1세, 만 2세, 만 3세로 나누고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육경험의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의 보육경험의 유무, 주당 보육시간, 종일제 보육 여부, 그리고 보육시작 시기라는 보육경험의 변인을 구성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총점)과 또래유능성(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만 3세 이전의 보육경험이 경험시기에 따라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 역시 살펴보았다. 또한 생애 초기 보육의 경험과 유아기 문제행동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에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보육경험의 시기성을 고려한 연구와 보육의 영향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육의 양적 측면이나 시작 시기와 같은 요인과 유아기 발달 간의 관계가 파악된다면,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생애 이른 시기에 보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이 가정양육 유아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영아기 보육서비스의 전면적 확대보다는 꼭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보육의 양과 유아발달 간에 부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타

인 양육에 대한 부모의 우려나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육의 경험이 남아와 여아에게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보육시작 시기 및 시간에 대한 부모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1. 생애 초기 보육경험(보육기관 이용여부, 주당보육시간, 종일제보육 여부, 보육시작시기)에 따라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생애 초기 보육경험과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에 유아 성별에 따른 양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3. 생애 초기 보육경험의 변인이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 중 만 4세에 보육기관 교사가 보고한 문제행동 또는 또래상호작용의 자료가 존재하는 1,6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078가구를 1차년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가 만 4세에 해당하는 5차년도에는 총 1,703가구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의 원년에 해당하는 1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81.9%가 조사를 완료한 것에 해당한다. 만 4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생후 3년 간의 다양한 보육경험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시기이며, 대부분의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게 되어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만 4세 조사시 평균월령은 51.99개월($SD=1.24$)이었고, 대상 유아 중 약 51.1%인 866명이 남아, 48.9%인 829명이 여아였다. 전체 유아 중 약 45.8%가 첫째자녀였다. 유아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81세($SD=3.79$)이었고, 어머니의 약 29.1%(499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26.9%(453명)가 전문대 졸업, 43.6%(734명)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42.4%인 710명이 취업모였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약 443.86만원($SD=367.09$)이었다.

2. 연구도구

1) 보육경험

유아의 보육경험은 만 1세, 만 2세 그리고 만 3세 조사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보육기관 이용여부, 보육기관 이용시간과 만 4세에 어머니가 응답한 보육기관을 처음 이용한 자녀 월령으로 측정하였다.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류된 경우, 만 1세와 만 2세 시기 기관유형은 모두 어린이집이었으며, 만 3세에는 어린이집이 95.6%, 나머지는 유치원 및 놀이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놀이학교는 행정적 의미에서 보육기관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어머니 보육이 아닌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육아지원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들 유아의 경험은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해외연구에서 보육 연구를 하는데 있어 헤드스 타트나 프리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및 유아교육기관을 배제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였다. 만 1세 때 연구대상자의 8.5%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였고, 만 2세 때에는 42.0%, 만 3세 때에는 80.1%의 유아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였다(<Table 1>).

보육기관 등원 및 하원시간과 주당 이용일수를 이용하여 주당 보육시간을 산출하였다.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해당 연령의 주당 보육시간을 0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 시기에 보육기관을 이용한 경우, 보육기관 재원 유아만을 추출하여 주당보육시간을 산정하였다. 유아가 각 시기에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인 경우 종일제 보육으로 분류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는 종일제 보육을 주당 30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D. Berry, C. Blair, & D. Granger, 2016; C. Howes, 1997; NICHD ECCRN, 2001b),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당 35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종일제 보육의 기준으로 삼고 집단을 구성하였다. 만 1세에는 전체 유아의 7.6%, 만 2세에는 38.9%, 만 3세에는 77.5%가 종일제로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Table 1>). 보육기관 이용시작 시기는 만 1세에서 만 4세의 각 조사에서 어

머니가 응답한 보육기관 시작 월령 중 최소값을 계산하여 '최초 보육기관 시작월령'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보육기관을 이용한 경우 평균시작월령은 약 생후 26.58($SD=11.29$)개월이었다.

2)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은 크게 문제행동과 또래유능성 두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유아의 문제행동은 K. Oh and Y. Kim(2009)의 CBCL 1.5-5 매뉴얼 개정판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100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행동 24문항과 내재화 문제행동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묻는 각 문항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유아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3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영역은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반영하는 척도로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가죽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영역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반영하며, "어른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늘 하던 일과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가 응답한 각 하위영역의 점수는 표준점수로 변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만 4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Cronbach's \alpha=.87$)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Cronbach's \alpha=.87$)는 모두 높은 편이었다.

만 4세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또래와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평정하는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 J. Fantuzzo, K. Coolahan, J. Mendez, P. McDermott, & B. Sutton-Smith, 1998)를 H. Choi and H. Shin(2008)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연구진이 검토, 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 유아의 교사가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한국어동패널에서 사용한 PIPPS는 세 가지 관찰 범주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에 대해 1점부터 4점의 리커트척도로 평가하는 평정척도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통제, 그리고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행동에 관한 4점 리커트 척도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 평정 놀이상호작용의 내적 일관성은 높게 나타났다($Cronbach's \alpha$

$=.80$). 한편 놀이방해는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을 반영하는 행동을 4점 리커트 척도의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놀이단절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의 보이는 위축과 회피의 부정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 평정 놀이방해($Cronbach's \alpha=.85$)와 놀이단절($Cronbach's \alpha=.83$)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육경험 변인과 유아 사회정서발달 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의 분석

생애 초기 보육경험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t-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기관 이용여부 및 종일제보육 여부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t-검증으로 비교함에 있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변량동질성 여부에 따라 해당되는 t-검증 결과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라 보육경험과 사회정서발달의 영역별로 상이한 유형의 관계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남아와 여아에 대한 t-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경험의 변인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보고의 간명성을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은 남아와 여아 구분 없이 전체 유아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생애 초기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만 1세, 만 2세, 만 3세 시기의 어린이 이용여부에 따른 만 4세 사회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 1세 때 보육기관을 이용한 경우($M=28.32, SD=5.91$), 이용하지 않은 유아에 비해($M=26.38, SD=6.07$) 만 4세 때 놀이방해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였다($t=-3.03, p<.01$). 만 2세 때 보육기관을 이용한 유아는($M=49.99, SD=9.81$) 이용하지 않았던 유아에 비해($M=48.98, SD=9.30$) 역시 외현화 문제행동을 빈번히 보이고($t=-2.16, p<.05$), 놀이방해행동 역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4.24, p<.001$). 이와 일관되게 만 3세 보육기관을 이용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t=-3.39, p<.01$)과 놀이방해($t=-5.01, p<.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Min	Max	Frequency (%)	<i>M</i>	<i>SD</i>	<i>N</i>
Child care variables						
Any child care at age 1 (%)			142(8.5)			1695
Any child care at age 2 (%)			712(42.0)			1695
Any child care at age 3 (%)			1357(80.1)			1695
Hours in child care/week at age 1	0	62.50		3.64	12.40	1695
Hours in child care/week at age 2	0	77.50		16.34	20.09	1695
Hours in child care/week at age 3	0	65.00		29.72	16.46	1695
Hours in care/wk if in care at age 1	15.00	62.50		42.97	11.15	144
Hours in care/wk if in care at age 2	5.42	77.50		38.83	9.26	715
Hours in care/wk if in care at age 3	3.33	65.00		37.13	7.95	1360
Full-time child care at age 1 (%)			125(7.6)			1678
Full-time child care at age 2 (%)			624(38.9)			1607
Full-time child care at age 3 (%)			1164(77.5)			1502
Age at first entry to child care(months)	2	52		26.58	11.29	
Problem behaviors at age 4						
Total	24	86		49.31	9.86	1694
Externalizing	31	84		49.41	9.53	1694
Internalizing	31	90		49.85	9.59	1694
Peer Competence at age 4						
Play Interaction	9	36		27.95	3.52	1018
Play Disruption	14	47		26.57	5.94	1018
Play Disconnection	8	26		12.48	3.59	1018

점수를 보였고, 이에 반해 또래단절은 낮게 나타났다 ($t=2.66, p<.01$). 즉, 만 3세 경 보육기관 경험은 가정 및 교실 상황에서 다소 산만하고 공격적이거나 또래관계에서 주의를 요하는 행동을 보이는 동시에, 또래 간의 놀이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남아와 여아에 있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만 1세 때 보육여부에 따른 만 4세 놀이방해행동의 차이는 여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만 1세 시기에 보육기관에 다녔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놀이방해에 차이가 없으나, 여아의 경우, 보육기관에 다닌 여아가($M=27.46, SD=6.13$) 그렇지 않은 여아에 비해($M=24.66, SD=5.27$)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56, p<.001$).

만 2세와 만 3세 시기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사회정서발달도 남아와 여아 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아의 경우에만 만 2세와 만 3세에 보육기관에 다녔던 유아(만 2세 $M=50.39, SD=9.90$; 만 3세 $M=51.55, SD=9.85$) 그렇지 않았던 유아들에 비해(만 2세 $M=48.65, SD=8.66$; 만 3세 $M=49.78, SD=9.27$) 만 4세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다. 반면 또래단절의 경우 여아의 경우에만 만 2세와 만 3세에 보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을 경우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아의 경우 보육기관에 다닌 경우(만 2세 $M=11.64, SD=3.21$; 만 3세 $M=11.78, SD=3.24$), 그렇지 않은 여아보다(만 2세 $M=12.31, SD=3.41$; 만 3세 $M=13.07, SD=3.57$) 만 4세 시기에 또래로부터 위축되거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시기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여부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기관 이용여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놀이방해 변인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보육관련 변인을 동시에 투입함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해 이후 제시될 모든 회귀분석에 대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산출하였으며, 최대 VIF 값은 약 1.71이었다. 이는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중공선성 기준인 10(J. Hair, R. Anderson, R. Tatham, & W. Black, 1995), 또는 더 엄격한 기준인 4(Y. Pan & P. Jackson, 2008)를 밑돌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by Any Child Care Experiences

	Any child care (Age 1)			Any child care (Age 2)			Any child care (Age 3)		
	Yes <i>M(SD)</i>	No <i>M(SD)</i>	<i>t</i>	Yes <i>M(SD)</i>	No <i>M(SD)</i>	<i>t</i>	Yes <i>M(SD)</i>	No <i>M(SD)</i>	<i>t</i>
Problem behaviors total									
Total	50.27 (10.00)	49.22 (9.85)	-1.22	49.49 (10.09)	49.19 (9.69)	-.62	49.52 (10.01)	48.48 (9.24)	-1.83 [†]
Boys	51.71 (10.60)	49.95 (9.63)	-1.45	50.78 (9.83)	49.57 (9.61)	-1.79	50.39 (9.90)	48.65 (8.66)	-2.15 [*]
Girls	48.58 (9.11)	48.65 (10.03)	.05	48.27 (10.26)	48.93 (9.70)	.93	48.60 (10.03)	48.86 (9.56)	.28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otal	50.65 (9.51)	49.30 (9.52)	-1.62	49.99 (9.81)	48.98 (9.30)	-2.16 [*]	49.78 (9.65)	47.92 (8.90)	-3.39 ^{**}
Boys	52.35 (10.23)	50.38 (9.49)	-1.64	51.55 (9.85)	49.78 (9.27)	-2.67 ^{**}	50.98 (9.68)	48.42 (8.67)	-2.95 ^{**}
Girls	48.34 (9.46)	48.79 (8.66)	-.40	48.57 (9.51)	48.24 (9.30)	1.72	48.51 (9.46)	47.77 (9.06)	-.86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otal	50.62 (9.12)	49.78 (9.53)	-1.00	49.66 (9.78)	49.99 (9.45)	.71	49.88 (9.75)	49.75 (9.22)	-.21
Boys	50.99 (9.57)	50.08 (9.37)	-.76	50.53 (9.60)	49.96 (9.22)	-.72	50.27 (9.59)	49.60 (8.33)	-.86
Girls	49.94 (8.61)	49.61 (9.89)	-.27	48.95 (9.93)	50.15 (9.65)	-.49	49.46 (9.77)	50.48 (9.83)	1.14
Play interaction									
Total	27.94 (3.22)	27.95 (3.55)	.03	28.13 (3.43)	27.81 (3.58)	-1.44	27.98 (3.47)	27.79 (3.73)	-.70
Boys	27.10 (3.84)	27.29 (3.68)	.34	27.41 (3.80)	27.16 (3.61)	-.76	27.18 (3.69)	27.77 (3.67)	1.34
Girls	28.64 (2.41)	28.68 (3.27)	.08	28.91 (2.79)	28.49 (3.46)	-1.46	28.87 (2.97)	27.78 (3.90)	-2.45
Play disruption									
Total	28.32 (5.91)	26.38 (6.07)	-3.03 ^{**}	27.46 (5.93)	25.87 (5.88)	-4.24 ^{***}	26.97 (6.00)	24.77 (5.38)	-5.01 ^{***}
Boys	29.35 (5.90)	29.35 (5.90)	-1.47	28.80 (5.86)	27.49 (6.11)	-2.49 [*]	28.56 (5.95)	25.74 (5.87)	-4.15 ^{***}
Girls	27.46 (6.13)	24.66 (5.27)	-3.56 ^{***}	26.03 (5.67)	24.12 (5.09)	-3.87 ^{***}	25.25 (5.56)	23.73 (4.65)	-2.71 ^{**}
Play disconnection									
Total	12.59 (3.59)	12.47 (3.58)	-.32	12.30 (3.59)	12.62 (3.59)	1.41	12.34 (3.57)	13.11 (3.62)	2.66 ^{**}
Boys	13.30 (4.26)	12.83 (3.73)	-.78	12.90 (3.84)	12.85 (3.73)	-.15	12.84 (3.78)	13.02 (3.75)	.40
Girls	12.00 (3.06)	12.01 (3.37)	.03	11.64 (3.21)	12.31 (3.41)	2.20 [*]	11.78 (3.24)	13.07 (3.57)	3.30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and Play Disruption at Age 4 from Any Child Care Experience from Age 1 to 3 (N=1,694)

	Externalizing problem		Play disruption	
	<i>B(SE)</i>	β	<i>B(SE)</i>	β
Intercept	47.88(.52) ^{***}		24.67(.43) ^{***}	
Any child care at age 1	.83(.88)	.02	1.11(.67)	.05 [†]
Any child care at age 2	.40(.52)	.02	.90(.42)	.08 [*]
Any child care at age 3	1.61(.62)	.07 ^{**}	1.71(.51)	.11 ^{***}
R^2	.01		.03	
F	4.16 ^{**}		10.86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y child care is dummy coded(any child care use=1, no child care use=0).

Table 4.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Hours in Child Car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for All Children

		Problem behavior total	Externalizing	Internalizing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Play disconnection
Hours in child care/week (Age 1)	Total	.04	.05*	.03	.00	.10**	.01
	Boys	.06	.07	.04	-.02	.07	.04
	Girls	.01	.02	.01	.01	.15**	-.01
Hours in child care/week (Age 2)	Total	.02	.05*	-.01	.05	.13***	-.05
	Boys	.06	.09**	.02	.05	.11*	.00
	Girls	-.03	.01	-.06	.07	.18***	-.11*
Hours in child care/week (Age 3)	Total	.05*	.09***	.02	.02	.17***	-.07*
	Boys	.10**	.12**	.06	-.06	.20***	.00
	Girls	-.02	.02	-.04	.12**	.16***	-.14**

* $p < .05$, ** $p < .01$, *** $p < .001$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보육기관 이용여부는 만 3세 이용여부만이 유의한 영향 ($\beta=.07, p<.01$)을 미쳤다. 놀이방해는 만 2세($\beta=.08, p<.05$)와 만 3세 보육기관 이용여부($\beta=.11, p<.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으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만 3세 보육기관 이용여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에서 모두 회귀모델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생애 초기 보육기관 이용여부의 설명력(외현화 문제행동 $R^2=.01$, 놀이방해 $R^2=.03$)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애 초기 보육기관 이용시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생애 초기 주당 보육기관 이용시간과 사회성을 나타내는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시기에 보육기관에 재원하지 않은 경우 '주당 보육기관 이용시간=0'으로 산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만 1세, 만 2세 그리고 만 3세 시기 모두의 보육기관 이용시간과 만 4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여(만 1세, 만 2세 $r=.05, p<.05$, 만 3세 $r=.09, p<.001$), 생애 초기 보육기관 이용시간이 많았던 유아는 만 4세 때 공격적 행동이나 주의산만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빈번히 나타내며, 보육시간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성은 만 3세 보육시간과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관관계 양상이 생애 초기 보육기관에서 보낸 시간과 놀이방해 행동 사이에도 발견되었다. 유아가 만 1세($r=.10, p<.001$), 만 2세($r=.13, p<.001$), 그리고 만 3세 시기에($r=.17, p<.001$) 보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은 또래 간 놀이방해행동의 증가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성의 강도는 만 3세 보육기관 이용시간과 가장 높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보육시간과 외현

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보육기관 이용시간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놀이방해와 더불어 문제행동 총점 ($r=.05, p<.05$) 및 놀이 단절($r=.07, p<.05$)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만 3세 시기에 보육기관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 문제행동 전체 와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놀이방해가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또래로부터 소외나 단절되는 행동양상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보육시간의 증가는 남아에게서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만 2세 $r=.09, p<.01$; 만 3세 $r=.12, p<.001$)와 연관되었고, 여아에게서만 놀이 단절의 감소(만 2세 $r=-.11, p<.05$; 만 3세 $r=-.14, p<.01$) 및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의 증가(만 3세 $r=.12, p<.01$)와 연관되었다. 보육시간과 놀이방해와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남아와 여아에게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기관에 재원했던 유아만을 대상으로 이용시간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5>), 만 1세와 만 2세 시기 보육기관 주당 이용시간은 만 4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만 3세에만 더 많은 시간을 보육기관에서 보낸 경우, 만 4세 때 놀이방해행동을 더 보이는 경향이 약하지만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1, p<.01$).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보육기관을 이용했던 유아 집단 내에서 이용시간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와 여아를 분석한 결과 만 3세 시기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와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r=.08, p<.05$)과 여아의 놀이방해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r=.14, p<.01$).

만 1세에서 만 3세에 거쳐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후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예측하는 데 있어, 보육의 시기에 따른 영향력의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기관을 사

Table 5.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Hours in Child Care for Children Who Were in Child Car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Problem behavior total	Externalizing	Internalizing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Play disconnection
Hours in child care/week (Age 1)	Total	.14	.13	.08	.04	.05	-.01
	Boys	.12	.10	.11	-.01	.09	.04
	Girls	.16	.16	.05	.17	.00	-.11
Hours in child care/week (Age 2)	Total	.01	.00	.01	.06	.04	-.04
	Boys	.01	.03	.00	.09	.02	-.03
	Girls	.01	-.05	.02	.01	.05	-.06
Hours in child care/week (Age 3)	Total	.04	.04	.03	.00	.11**	.01
	Boys	.08*	.07	.07	-.02	.09*	.03
	Girls	-.02	-.01	-.01	.01	.14**	-.02

* $p < .10$, * $p < .05$, ** $p < .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Child's Externalizing Problem and Play Disruption at Age 4 from Child Care Hours from Age 1 to 3 for All Children (N=1,694)

	Externalizing problem		Play disruption	
	B(SE)	β	B(SE)	β
Intercept	47.99(.48)***		24.68(.40)***	
Hours in child care at age 1	.02(.02)	.03	.02(.02)	.04
Hours in child care at age 2	.00(.01)	.00	.01(.01)	.05
Hours in child care at age 3	.05(.02)	.08**	.05(.01)	.14***
R^2		.01		.03
F		4.20***		12.04***

** $p < .01$, *** $p < .001$

용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관계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보육시간의 시기별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분석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상관관계 결과(<Table 4>)에 근거하여 종속변인을 선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육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문제 행동 총점, 외현화 문제행동, 놀이방해, 그리고 또래단절을 종속변인으로, 만 1세, 만 2세, 만 3세의 보육시간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문제행동 총점($F=2.22$, n.s.)과 또래단절($F= 2.08$, n.s.)에 대한 회귀분석은 분석모델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이 지지되지 않아 결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놀이방해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 4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beta = .08$, $p < .01$)과 놀이방해($\beta = .14$, $p < .001$)는 만 3세 때 경험한 주당보육시간에 의해서 유의하게 예측되었다. 반면, 만 1세 및 만 2세의 보육기관 이용시간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즉, 영아기 초기에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발달을 예측하는 데에 중요하게 기여하리라는 가정과는 달리, 최근 보육시간인 만 3세 시기의 보육시간에

의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더 잘 설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생애 초기 종일제 보육 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

보육기관 이용시간과 유아의 발달적 결과 간에 선형적 관계가 있기 보다는 집중적인 보육, 즉 종일제 보육의 여부가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종일제 보육여부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및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만 1세, 만 2세, 또는 만 3세에 주당 40시간 이상의 보육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만 4세에 보이는 놀이방해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만 2세 시기에 종일제 보육을 경험한 유아의 경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의미하는 놀이상호작용의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M=28.45$, $SD=3.28$ 대 $M=27.80$, $SD=3.57$, $t=2.45$, $p < .05$), 보육의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놀이방해를 제외하고 종일제 보육 경험이 다른 사회정서발달 변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7.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by Full-time Child Care Experiences

	Full-time child care (Age 1)			Full-time child care (Age 2)			Full-time child care (Age 3)		
	Yes <i>M(SD)</i>	No <i>M(SD)</i>	<i>t</i>	Yes <i>M(SD)</i>	No <i>M(SD)</i>	<i>t</i>	Yes <i>M(SD)</i>	No <i>M(SD)</i>	<i>t</i>
Problem behaviors total									
Total	50.67 (9.78)	49.23 (9.86)	-1.42	49.36 (9.26)	49.30 (10.01)	-.11	49.51 (10.00)	49.22 (9.80)	-.55
Boys	51.92 (9.98)	49.94 (9.70)	-1.37	50.36 (9.11)	50.02 (9.88)	-.43	50.69 (9.77)	49.81 (9.69)	-1.22
Girls	49.29 (9.55)	48.60 (9.97)	-.47	48.30 (9.38)	48.73 (10.08)	.49	48.25 (10.10)	48.82 (9.87)	.76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otal	51.03 (9.36)	49.31 (9.54)	-1.76 ⁺	49.82 (9.53)	49.30 (9.53)	-.90	49.65 (9.92)	49.30 (8.90)	-.69
Boys	52.58 (9.70)	50.41 (9.54)	-1.56	51.30 (9.61)	50.33 (9.54)	.44	50.99 (9.82)	50.33 (9.43)	-.93
Girls	49.45 (8.94)	48.31 (9.42)	-.82	48.36 (9.11)	48.38 (9.46)	.03	48.21 (9.84)	48.45 (9.18)	.34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otal	50.90 (8.95)	49.79 (9.63)	-1.13	49.45 (8.76)	49.96 (9.79)	.87	49.95 (9.44)	49.81 (9.66)	-.27
Boys	51.22 (8.91)	50.41 (9.54)	-.83	49.90 (8.61)	50.23 (9.59)	-1.21	50.61 (9.29)	49.95 (9.43)	-.96
Girls	50.39 (9.06)	49.59 (9.83)	-.55	48.96 (8.88)	49.81 (9.99)	.99	49.23 (9.58)	49.83 (9.87)	.80
Play interaction									
Total	27.99 (3.30)	27.95 (3.54)	-.09	28.45 (3.28)	27.80 (3.57)	-2.45 [*]	28.08 (3.59)	27.88 (3.48)	-.84
Boys	27.07 (4.16)	27.28 (3.66)	.31	28.00 (3.56)	27.05 (3.70)	-2.46 [*]	27.25 (3.78)	27.28 (3.65)	.09
Girls	28.73 (2.19)	28.67 (3.25)	-.16	28.94 (2.92)	28.60 (3.25)	-.99	28.93 (3.17)	28.54 (3.19)	-1.29
Play disruption									
Total	28.73 (5.71)	26.41 (5.94)	-3.06 ^{**}	27.39 (5.76)	26.33 (5.99)	-2.37 [*]	27.53 (5.92)	26.10 (5.91)	-3.60 ^{***}
Boys	29.83 (5.09)	27.96 (6.07)	-1.63	28.61 (5.90)	27.90 (6.06)	-1.12	29.05 (5.83)	27.60 (6.07)	-2.58 [*]
Girls	27.86 (6.10)	24.73 (5.31)	-3.37 ^{**}	26.07 (5.31)	24.64 (5.43)	-2.42 [*]	25.97 (5.62)	24.45 (5.27)	-2.95 ^{**}
Play disconnection									
Total	12.55 (3.77)	12.47 (3.58)	-.18	12.19 (3.55)	12.56 (3.60)	1.39	12.41 (3.60)	12.51 (3.59)	.42
Boys	13.39 (4.43)	12.84 (3.73)	-.74	12.72 (3.84)	12.91 (3.76)	.50	12.99 (3.72)	12.82 (3.80)	-.49
Girls	11.89 (3.03)	12.02 (3.36)	.23	11.60 (3.15)	12.13 (3.38)	1.43	11.82 (3.38)	12.11 (3.31)	.92

* $p < .05$, ** $p < .01$, *** $p < .001$

남아와 여아를 따로 분석한 결과, 여아의 경우 만 1세 ($t = -3.37$, $p < .01$), 만 2세 ($t = -2.42$, $p < .05$) 그리고 만 3세 ($t = -2.95$, $p < .01$)에 종일제 보육을 한 경우 놀이방해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아에게는 만 3세 종일제 보육경험에 따라서만 유의하였다 ($t = -2.58$, $p < .05$). 즉, 생애 초기 종일제 보육의 경험은 남아보다는 여아의 놀이방해행동과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만 2세 종일제 보육을 한 남아의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은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은 남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일제보육 여부에 따라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인 놀이 방해를 만 1세, 만 2세 및 만 3세 종일제보육 변인으로 예측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유아가 만 4세에 보이는 또래 간 놀이에서의 공

Table 8.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from Full-time Child Care from Age 1 to 3 for All Children

	Play disruption	
	B(SE)	β
Intercept	26.06(.23) ^{***}	
Full-time child care at age 1	1.78(.81)	.07*
Full-time child care at age 2	.00(.54)	.00
Full-time child care at age 3	1.20(.46)	.10 ^{***}
	R ²	.02
	F	6.05 ^{***}

* $p < .05$, *** $p < .001$. Full-time child care is dummy coded(Full-time child care=1, Part-time or no child care=0).

Table 9. The correlations between age at first entry to child car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Problem Behavior Total	Externalizing	Internalizing	Play Interaction	Play Disruption	Play Disconnection
Age at first entry to child care	Total	-.04	-.06*	-.01	-.02	-.18 ^{***}
	Boys	-.09*	-.10 ^{**}	-.06	.03	-.16 ^{***}
	Girls	.02	-.02	.04	-.07	-.22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age 4 from different time frame of first entry to child care First entry to child care after 36 months is the reference group.

	Play disruption	
	B(SE)	β
Intercept	24.68(.45) ^{***}	
Start child care during 1-12 months	3.40(.71)	.18 ^{***}
Start child care during 13-24 months	2.54(.56)	.20 ^{***}
Start child care during 25-36 months	1.78(.53)	.15 ^{**}
	R ²	.03
	F	9.82 ^{***}

** $p < .01$, *** $p < .001$

격적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이는 정도는 만 3세에 종일제보육을 경험한 경우($\beta = .10$, $p < .001$), 그리고 만 1세에 종일제보육을 경험한 경우($\beta = .07$, $p < .05$)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만 2세 시기 종일제보육 여부는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만 3세 종일제보육 경험이 만 1세 종일제보육 경험에 비해 큰 편이었다. 즉 최근 종일제보육의 경험 또는 영아기 초기에 주당 만 40시간 이상의 보육경험이 유아의 이후 또래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생애 초기 보육기관 이용 시작시기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보육 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기관 이용 시작시기와 만 4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9>), 보육기관 이용 시작시기가 이를 수록 외현화 문제행동($r = -.06$, $p < .05$)과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r = -.18$, $p < .001$).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른 보육시작 시기에 따른 문제 행동 총점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는 남아에게만 나타났다. 이른 보육시작에 따른 놀이방해행동의 증가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즉, 보육시작 월령이 어릴 때,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보다 다양한 부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육시작시기 구간별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Table 10>에 제시되어 있다. 보육기관 시작 월령에 따라 총 4개 집단을 구성하고, 만 36개월 이후 보육기관을 시작하는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1-12개월, 13-24개월, 그리고 25-36개월에 보육기관 이용시작을 가변수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만 12개월 이전에 보육을 시작한 경우와 만 13-24개

월 사이에 보육을 시작한 경우 만 3세 이후 보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에 비해 만 4세에 나타나는 놀이방해 행동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을 만 25-36개월 사이에 시작한 경우 역시, 만 3세 이후 보육기관에 다닌 경우에 비해 놀이방해 점수가 높았으나 그 영향력은 12개월 이전 및 13-24개월에 보육기관을 시작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즉, 만 3세 이전에 어느 시기이든 보육을 시작한 유아의 경우, 만 3세까지 보육기관을 다니기 시작하지 않은 유아에 비해 만 4세에 교사가 관찰한 놀이방해행동의 빈도가 높은 편이며, 보육시작 시기가 만 2세 이전일 때가 25개월에서 세 돌까 지인 경우에 비해 이후 또래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놀이방해행동을 예측하는 정도가 강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3세 이전 생애 초기 보육의 경험과 유아기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만 1세에서 3세 시기의 보육기관 이용여부, 주당 보육시간, 종일제 보육여부, 그리고 보육기관 시작 월령과 만 4세 문제행동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육경험과 유아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성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 역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애 초기 보육경험은 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놀이방해와 일관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단절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별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유아기 사회정서발달에는 일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만 2세와 3세에 보육기관을 이용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만 1세, 2세, 3세에 보육기관을 이용한 유아의 놀이방해 수준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유아에 비해 높았고, 만 3세에 보육기관을 이용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놀이단절 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차이에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는 남아에게서만, 놀이단절의 차이는 여아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반면 놀이방해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선택에 대한 시사점을 가진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어머니가 취업하는 이유 등의 요인이 영아기 자녀

를 위한 보육기관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Y. Chang & E. Pungello, 2007; E. Pungello & B. Kurtz-Costes, 2000),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지원이 제공되었던 시기의 자료 분석 결과임을 고려할 때, 영아기 보육기관 이용여부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부모의 가치관이나 필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J. Love et al., 2003). 즉, 영아기에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녀 발달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보호요인(e.g. 질 높은 보육기관의 선택, 가정 내 민감한 양육)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생애 초기 보육기관 이용시간은 유아의 놀이방해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와 약하나마 비교적 일관된 정적 관계를 가졌다. 즉, 만 1세에서 만 3세 시기에 보육시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 4세에 보이는 공격성이나 또래와의 부정적인 놀이행동이 많이 관찰되었다. 반면, 유아기의 놀이단절, 특히 여아의 놀이단절의 정도는 낮아져서,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을 배울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의 양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NICHD ECCRN, 2002; 2003)의 증가와 보다 나은 또래유능성(C. Eckerman & K. Perterma, 2001)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영아기, 특히 만 1세경 또는 그 이전의 보육의 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이후 보육경험과의 관계에 비해 강하다는 결과(J. Belsky & D. Eggebeen, 1991)는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이어서 보육기관에 재원했던 유아들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만 1~3세 시기의 보육시간과 이후 문제행동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만 3세 보육시간과 전체 유아 및 남아와 여아의 놀이방해 간의 정적인 관계, 그리고 남아의 문제행동 총점과의 정적인 상관관계 외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의 변량이 크지 않은 본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이용시간보다는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관계의 강도는 높지 않아서 보육, 양육 및 유아 개인의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에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셋째, 주 40시간 이상의 종일제 보육여부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유능성 부분에서 종일제 보육의 경험이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일제 보육을 경험한 경우, 긍정적 또래 간 놀이상호

작용과 놀이방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은 남아에게서, 놀이방해행동은 여아에게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종일제 보육경험에 따른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의 차이는 없었다. 보육시간과의 유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종일제 보육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보육의 양에 따른 문제행동의 증가에 있어 주당 보육시간 20시간(J. Belsky & M. Rovine, 1988), 또는 30시간(D. Vandell & H. Corasaniti, 1990)과 같은 일정의 임계치가 존재하여, 이 기준 이상의 보육을 경험한 경우에 보육이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보다는, 보육시간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NICHD ECCRN, 2003)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보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와 문제행동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는 흥미로운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보육 시작 시기가 이룰수록 전체 유아 및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여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보육 시작 시기가 이룰수록 또래 간에서도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이 더 빈번히 나타나는 경향 있었다. 이는 이른 보육 시작 시기와 문제행동의 발현(S. Loeb et al., 2007)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보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이나 기질과 같은 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S. Crockenberg, 2003)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으나, 유아가 처한 맥락에 따라 보육의 영향력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 Berry(2014)에 따르면 가정환경의 특성상 고위험 집단의 유아는 생후 7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시기에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 4세에 보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반면, 위험요인이 적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의 경우 보육기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A. Huston et al.(2015)도 보육시간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인종 유아에 비해 백인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유아가 처한 맥락의 특성에 따라 보육의 양적 측면에 대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행동문제 및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발달적 특성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뿐 아니라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보육의 영향력을 추후 연구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변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경험의 영향력에 있어 시기에 따른 상대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만 3세의 보육기관 이용여부 및 보육

시간, 종일제 보육 여부가 이전 만 1세 및 만 2세 시기의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생애 초기, 특히 만 1세 이하의 영아기의 보육의 양이 이후 보육 경험에 비해 유아 발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주장(J. Belsky & D. Eggebeen, 1991)을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보육경험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설명하는 정도는 낮아서, 영유아기 보육시간으로 유아의 발달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에서 1% 가량의 설명력만을 발견한 S. Loeb et al.(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보육관련 변인이 유아기 사회정서발달을 예측함에 있어 회귀모형이나 변인의 유의성 및 설명력이 부족한 것은 L. Roggman, J. Langlois, L. Hubbs-Tait and L. Rieser-Danner(1994)가 제기한 파일러드문제(file drawer problem)와 연관하여 해석 가능하다. L. Roggman et al.(1994)은 영아기 보육과 애착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밝히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애착에 대한 보육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있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한 보육을 경험하더라도, 일부 학자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애착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 역시 생애초기 종일제보육을 포함해 주당 일정시간 이상의 보육을 경험한다고 하여도, 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보육의 양적 측면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유아의 수가 많고, 보육의 질적 수준의 영향력과 결합된다면, 이 작은 영향력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A. Huston et al., 2015). 종합하면, 본 연구가 밝힌, 작지만 유의미한 보육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서 있어 보육경험, 특히 보육의 양적인 측면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는 제한적이며, 여타 다른 요인들, 특히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가족 및 양육관련 변인이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이 유아 발달의 잠재적 설명변인일 수 있음 역시 시사한다.

종합하면, 생애 초기 보육의 경험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에는 약하지만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한다. 더 많은 보육을 더 일찍 시작할수록 이후 유아에게서 더 많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놀이방해로 요약할 수 있는 과잉행동, 공격성, 주의집중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 소외되는 정도는

덜하며,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보이는 등 또래유능성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육을 경험하는 시기가 이를수록 그 관계성이 강하다는 실증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만 3세의 보육경험과 만 4세 발달적 결과와의 유의한 관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보육과 발달의 관계에 있어 유아 성별에 따른 유형적 차별성이 나타나, 남아의 경우에는 보육경험에 의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받는 반면, 여아는 또래유능성이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육의 양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성은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생애 초기 보육의 경험과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면, 보육경험과 사회정서발달 간에 성별에 따른 다른 관계의 양상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보육의 양적 측면과 유아기 사회정서발달 지표와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데 있었기에, 보육의 질적인 부분과 가정 내 양육관련 변인들은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에는 전문가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한 보육의 질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보육의 질적 수준과 유아 발달 간의 종단적인 관계 역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료의 수집 당시에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이었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의 맥락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육여부, 종일제보육 여부, 보육시간 및 시작 시기 각각이 유아 발달과 가지는 관계를 개별적으로 탐색하였으나, 최근의 한 연구에서 보육의 양적 측면이 유아 발달을 예측하는 복합적인 기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되었다. R. Coley, E. Votruba-Drzal, P. Miller, and A. Koury(2013)는 6,000명이 넘는 유아집단을 분석대상으로 보육 시작 시기, 보육의 양, 그리고 보육의 형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학령전기 유아의 문제행동을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매칭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방법도 종단자료에 대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힌 생애 초기 보육경험과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추후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초기 보육과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는 영아기의 중요한 발달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로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보육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발달적 맥락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초기 보육의 경험이 영아기에 중요한 어머니와의 애착 및 어머니의 양육민감성(H. Belsky, 1999; NICHD ECCRN, 1997), 또는 영아의

스트레스(A. Dettling, M. Gunnar, & B. Donzella, 1999; S. Park, M. Chung, J. Kwon, 2012; K. Tout, M. de Haan, E., Campbell, & M. Gunnar, 1998; S. Watamura, B. Donzella, J. Alwin, & M. Gunnar, 2003)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이후 유아기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 경로를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생애 초기에 보육이 시작될수록 그 경험에 집약적인 경향이 있는데, 본 자료에서도 만 1세에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당이용시간이 42.97시간으로 종일제보육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연령에도 불구하고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취업 등으로 보육에 대한 필요에 의해 시작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이른 보육의 시작은 보다 집약적이고 장기적인 보육경험을 의미하게 된다. 절대적인 보육의 양의 증가는 생애 초기에 차별적인 발달맥락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중 또래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NICHD ECCRN, 2007). 즉,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가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또래와의 일상생활이 이후 행동적 특성이나 놀이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즉 이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 관련 변인이 초기 보육경험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모델의 검증, 또는 보육기관 내 또래집단의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정서발달과 연관시키는 연구들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또한 보육형태가 자주 변동되거나, 동시에 하나 이상의 비모성보육을 경험할 때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A. Pilarz & H. Hill, 2014). 종단자료를 활용한 보육안정성 관련 연구도 제안할 수 있다.

REFERENCES

- Andersson, B. E. (1989). Effects of public day-car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0(4), 857-866.
- Anne, T., & Segal, U. A. (2004).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in over 11 hours of centre based car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0(4), 345-352.
- Bacharach, V. R., & Baumeister, A. A. (2003). Child care and severe externalizing behavior in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527-537.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 1 - 9.

- Belsky, J. (1999). Quantity of nonmaternal care and boys' problem behavior/adjustment at ages 3 and 5: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Psychiatry, 62*(1), 1-20.
- Belsky, J. (2001). Developmental risks (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7), 845 - 859.
- Belsky, J., & Eggebeen, D. (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 and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1083-1098.
- Belsky, J., & Rovine, M.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1), 157-167.
- Berry, D., Blair, C., & Granger, D. A. (2016). Child care and cortisol across infancy and toddlerhood: Poverty, peers, and developmental timing. *Family Relations, 65*(1), 51-72.
- Berry, D., Blair, C., Ursache, A., Willoughby, M., Garrett-Peters, P., Vernon-Feagans, L., Bratsch-Hines, M., Mills-Koonce, W. R., & Granger, D. A. (2014). Child care and cortisol across early childhood: Context mat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50*(2), 514.
- Borge, A. I., & Melhuish, E. C.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hood behaviour problems, maternal employment, and day care in a rural Norwegian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1), 23-42.
- Burchinal, M. R., & Cryer, D. (2004). Diversity, child care quality, and developmental outcom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4), 401-426.
- Campbell, J. J., Lamb, M. E., & Hwang, C. P. (2000). Early child-care experienc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etween 11/2 and 15 years of ag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3), 166-176.
- Chang, Y. E., & Pungello, E. P. (2007). Association of family income and ethnicity with parents' selection of infant child ca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6), 21-33.
- Chaplin, T. M., & Aldao, A. (2013).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in children: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9*(4), 735-765.
- Cho, H. -J., & Lee, K. -S. (2004).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family characteristics, child-care experience and temperament variables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4), 263-284.
- Choi, H. S., & Park, S. Y. (2008). The effects of child inhibition, day-care experiences and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 social withdrawal.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4), 15-24.
- Choi, H. Y., & Shin, H. Y. (2008). Validation of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for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303-318.
- Choi, M. N., & Shin, N. (2015).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day-care experience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1*(2), 283-310.
- Clarke-Stewart, A., & Allhusen, V. D. (2005). *What we know about childcare*.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ed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ist, 44*(2), 266-273.
- Coley, R. L., Votruba-Drzal, E., Miller, P. L., & Koury, A. (2013). Timing, extent, and type of child care and children's behavioral functioning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49*(10), 1859-1873.
- Côté, S. M., Borge, A. I., Geoffroy, M. C., Rutter, M., & Tremblay, R. E. (2008). Nonmaternal care in infancy and emotional/behavioral difficulties at 4 years old: moderation by family risk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44*(1), 155-168.
- Creps, C. L., & Vernon-Feagans, L. (1999).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in day care: Links with entering day care in the first yea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461-479.
- Crockenberg, S. C. (2003). Rescuing the baby from the bathwater: How gender and temperament (may) influence how child care affects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4*(4), 1034-1038.
- Dettling, A. C., Gunnar, M. R., & Donzella, B. (1999). Cortisol levels of young children in full-day child-care centers: Relations with age and temperament. *Psychoneuroendocrinology, 24*(5), 519-536.
- Eckerman, C. O. & Perterman, K. (2001). Peers and infant social/communicative development. In G. Brenner & A. Foger (Eds.) *Blackwell Handbook of*

- Infant Development* (pp. 326-350), Blackwell: Malden, MA.
- Fantuzzo, J. W., Rouse, H. L., McDermott, P. A., & Sekino, Y. (2005). Early childhood experiences and kindergarten success: A population-based study of a large urban setting. *School Psychology Review, 34*(4), 571-588.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armer, A. D., & Bierman, K. L. (200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aggressive-withdrawn problem profiles in early grade school.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299-311.
- Field, T. M. (1994). Infant day care facilitates later social behavior and school performance. In H. Goelman & E. V. Jacobs (Eds.), *Children's Play in Child Care Settings* (pp. 69-8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 Gunnar, M. R., Kryzer, E., Van Ryzin, M. J., & Phillips, D. A. (2010). The rise in cortisol in family day care: Associations with aspects of care quality, child behavior, and child sex. *Child Development, 81*(3), 851-869.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3rd ed). New York: Macmillan.
- Howes, C. (1997). Children's experiences in center-based child care as a function of teacher background and adult: child ratio.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04-425.
- Howes, C., &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1), 202 - 216.
- Huston, A. C., Bobbitt, K. C., & Bentley, A. (2015). Time spent in child care: How and why does it affect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51*(5), 621-634.
- Jaffee, S. R., Van Hulle, C., & Rodgers, J. L. (2011). Effects of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3 years on children's academic skills and behavioral functioning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sibling comparison study. *Child Development, 82*(4), 1076-1091.
- Jahng, K.-E. (2012). Equity in child welfare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hild care policy and the welfare polic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8*, 127-155.
- Kim, H. J., & Kim, Y. H. (2011).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aggression on peer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15*, 31-45.
- Kim, K. H., & Shin, I. C. (2012). Kindergarten and child care long-term effects: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5), 259-288.
- Kim, S. H. (2008). The effects of child-care experiences,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6), 185-206.
- Kwak, J. Y. & Lee, Y. (1997). The quality of caregiver's behaviors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2), 385-399.
- Kwon, Y.-H. (2012). The moderating role of teacher-child conflictual relationship o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eer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2), 29-48.
- Lee, H. M., & Park, C. G. (201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daycare policy.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5*(4), 205-232.
- Lee, K.-S., Kim, Y.-O., & Park, K.-J. (2005). Relations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6), 255-275.
- Loeb, S., Bridges, M., Bassok, D., Fuller, B., & Rumberger, R. W. (2007). How much is too much? The influence of preschool center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1), 52-66.
- Love, J. M., Harrison, L., Sagi Schwartz, A., Van Ijzendoorn, M. H., Ross, C., Ungerer, J. A., & Constantine, J. (2003). Child care quality matters: How conclusions may vary with context. *Child Development, 74*(4), 1021-1033.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 - 5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5 Child Care

- Statistics.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I-Sarang plan 2009~2012*.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m Gung, S. J., & Choi, Y. H. (2008). Relationship between 5 year ol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daycare experience and daycare quality.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9*(1), 45-54.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24 and 36 months. *Child Development, 69*(4), 1145 - 11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68*(5), 860 - 8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b). Nonmaternal care and family factors in early development: An overview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457-49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 Early child care and children's development prior to school entry: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1), 133-164.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4), 976-1005.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7). Are there long term effects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8*(2), 681-701.
- Oh, K. J., & Kim, Y. A. (2009). *CBCL 1.5-5 manual revised*. Seoul: Huno Consulting.
- Pan, Y., & Jackson, R. T. (2008). Ethnic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ute inflammation and serum ferritin in US adult males. *Epidemiology and Infection, 136*, 421-431.
- Park, K., & Honig, A. (1991). Infant child care patterns and later teacher ratings of preschool behavio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8*(1), 89 - 96.
- Park, S.-Y., & Ko, E.-J. (2004). The effect of day-care, child's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behavior on chil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2*(2), 23-35.
- Park, S.-K., Chung, M.-R., & Kwon, J.-Y. (2012). The cortisol pattern of two year old toddlers during the adaptation period to a new class at childcare cent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485-501.
- Pilarz, A. R., & Hill, H. D. (2014). Unstable and multiple child care arrangements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9*(4), 471-483.
- Pungello, E. P., & Kurtz Costes, B. (2000). Working women's selection of care for their infants: A prospective study. *Family Relations, 49*(3), 245-255.
- Roggman, L. A., Langlois, J. H., Hubbs-Tait, L., & Rieser-Danner, L. A. (1994). Infant day care, attachment, and the "file drawer problem". *Child Development, 65*(5), 1429-1443.
- Shim, H. O. (2007).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on bullying/victimization and overt/relational aggression: Focused on gend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6), 1107-1118.
- Solheim, E., Wichstrøm, L., Belsky, J., & Berg Nielsen, T. S. (2013). Do time in child care and peer group exposure predict poor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Norway? *Child Development, 84*(5), 1701-1715.
- Statistics Korea. (2016). *Population Statistics by Age*. Retrieved from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 Stein, A., Malmberg, L. E., Leach, P., Barnes, J., & Sylva, K. (2013). The influence of different forms of early childcare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development at school entr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9*(5), 676-687.
- Torres, N., Verissimo, M., Santos, A. J., Monteiro, L., Figueiredo, M., & Vaughn, B. E. (2015). Quantity of group child care, behavior problems, and prosocial behaviors: A study with Portuguese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6*(8), 1145-1165.
- Tout, K., Haan, M., Campbell, E. K., & Gunnar, M. R. (1998). Social behavior correlates of cortisol activity in child care: Gender differences and time of day effects. *Child Development, 69*(5), 1247-1262.
- Um, S. A., & Park, S. Y. (2006). Toddlers' aggression

-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6), 59-69.
- Van Beijsterveldt, T. C., Hudziak, J. J., & Boomsma, D. I. (2005). Short-and long-term effects of child care on problem behaviors in a Dutch sample of twins.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8(3), 250-258.
- Vandell, D., & Corasaniti, H. (1990). Child care and the family: Complex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9, 23-37.
- Watamura, S. E., Donzella, B., Alwin, J., & Gunnar, M. R. (2003). Morning to afternoon increases in cortisol concentra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at child care: Age differences and behavioral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4(4), 1006-1020.
- Zachrisson, H. D., Dearing, E., Lekhal, R., & Toppelberg, C. O. (2013). Little evidence that time in child care causes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in Norway. *Child Development*, 84(4), 1152-1170.
- Zahn-Waxler, C., Usher, B., Suomi, S., & Cole, P. M. (2005). Intersections of biology and behavior in young children's antisocial patterns: The role of development, gender and socialization. In D. M. Stoff & E. J. Susman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of aggression* (pp. 141-1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ceived: May 12. 2016
- Revised: August 21. 2016
- Accepted: August 25. 2016